

'천군만마' 주저앉은 농심에 일손 보탬 장병들

연일 기록적인 폭설로 주저앉은 뒤 복구에 업무조차 못 내던 시설 하우스 농가에 육군 장병들이 소중한 일손을 보탬다.

27일 오후 전남 담양군 가사문화면 구산리의 한 포도밭.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부대원 40명이 지난 폭설로 통째로 주저앉고 넘어진 비 가림용 하우스를 해체하고 있었다.

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무너진 시설물을 하나하나 뜯어냈다. 힘없이 주저앉아 땅바닥에 뒹구는 하우스 비닐을 걷어내고 시설 곳곳에 쌓인 눈을 퍼냈다.

무거운 하우스 철조 지지대도 부대원 5명이 눈길 몇 번 주고 받은 뒤 한번에 힘을 주자, 한 쪽으로 치워졌다. 복구 작업 시작 30분여 만에 찢긴 채 이리저리 날리던 비닐도 말끔하게 치워졌고 무너진 하우스 안 포도나무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 11특전여단·31사단, 폭설 피해 복구 지원



빠른 복구 작업에 시설 하우스 재배 농민 김동운(75)씨는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의 거봉·샤인머스켓 재배 시설 하우스(면적 4400㎡)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몰아친 눈보라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시설물이 통째로 주저앉거나 망가

순 부죽에 발만 뚱뚱 굴렀다. 담양군의 소개로 이날 군 부대의 일손을 빌려 복구에 첫 발을 뒀 수 있었다.

그에게는 복구 지원에 나선 군 장병이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김씨는 "70대인 우리 부부가 복구는 업무조차 못 내던 차였다. 젊은 군 장병들이 겪어보지 않아 서투른 일인데도 열성을 다해 도와주니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 이지호 대위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육군 제31보병사단 소속 장병 20여 명도 담양군 담양읍 일대 시설 재배 하우스 농가에서 재설 복구 작업에 나섰다.

피해 시설물을 견어내야 내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데 만성적인 일

과를 감당할 수 있는 데만성적인 일

과를 감당할 수 있는 데만성적인 일

과를 감당할 수 있는 데만성적인 일

과를 감당할 수 있는 데만성적인 일

과를 감당할 수 있는 데만성적인 일

과를 감당할 수 있는 데만성적인 일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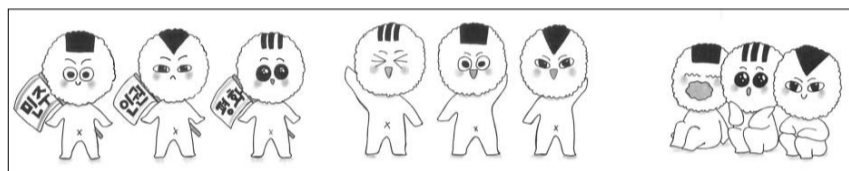
순천시씨름협회, 순천시에 '사랑의 쌀' 기탁 순천시씨름협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난 26일 순천시에 백미(10kg) 500포를 기탁했다. 순천시는 전남남해자치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날 기탁받은 쌀을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해 사랑의 온도를 높일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완도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와 잠수 동호회 설립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한국해양구조협회 잠수구조대와 잠수 동호회(Suba Police)를 발대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수중구조 필요 시 투입되는 해경 구조대와 잠수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잠수지역구조대 간 장비 활용 및 구조 노후유를 공유하고자 동호회 설립을 추진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5·18 가짜뉴스, 역사왜곡 '5·18푸른새'가 잡는다

광주교육청, 청소년 5·18 홍보단 이름 짓기 우수작 선정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5·18 홍보단 이름 짓기, 슬로건,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짜뉴스, 역사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는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5·18홍보단의 이름이 '5·18푸른새'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청소년 5·18 홍보단 이름 짓기, 슬로건,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해 우수작 3건, 가짜 18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전 우수작은 '5·18 푸른새'로 시간과 장소, 외압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한다는 청소년 홍보단의 의지가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건 우수작은 '5·18을 기억하고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면서 평화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억된 오늘과 함께 평화로'가 선정됐다. 캐릭터 출품작은 '5·18 당

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허기를 달랠던 주먹밥을 활용해 탄생한 '민주·인권·평화'가 뽑혔다.

주먹밥은 역사가 흘러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상징물로 여겨지듯이 청소년 5·18 홍보단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오는 3월 청소년 5·18 홍보단을 모집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 홍보한다. 또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 역사왜곡 등에 대한 역사 바로잡기 활동도 병행한다.

선정된 이름, 슬로건, 캐릭터 우수작은 청소년 5·18 홍보단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광양, 청년 도서 구입비 예산 1억2천만 원으로 확대

광양시립도서관이 내년 1월 9일부터 전년보다 2000만 원 늘어난, 1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힐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본 사업은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취업 준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서점을 이용한 도서 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에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광양시립도서관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1인당 10만 원까지 (2회 분할 신청 가능)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도서 구입비의 50%)을 합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도서 구입비의 30% 이상은 반드시 취업이나 자격증 관련 도서를 포함해야 하며,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서 구입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인사

광주은행

◇부행정보 승진

▲박성우 평등공공금융센터장 ▲정일선 인사지원부장 ▲김재출 영업추진부장 ▲김용규 종합기획부장

전남도시가스,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 3천만원 기탁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 함께 나누는 기업 정신 실현

전남도는 지난 26일 전남도시가스 지역 미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은규 전남도시가스(주) 대표이사,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시가스는 '지역사회

와 더불어 행복을 함께 나누는 기업'을 목표로 2016년부터 미혼모가족 복지시설인 순천 살로메나눔터에 4100만 원을 기부하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억2000만 원의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1983년 설립된 전남도시가스(주)는 2021년에는 천연가스(LNG) 보급 확대를 위해 65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등 지역민의 생활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박종배 기자

동구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개청식

활짝마을 소통·화합의 복합문화공간 역할 기대



동구는 27일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이병훈 국회의원, 김재식 동구의장, 시·구의원, 지역 기관, 단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는 이번 달 19일 그동안 사용해왔던 두산위브2차 상가 내 임시청사에서 동계로 68에 위치한 신축복합센터로 이전, 업무를 개시했다.

구는 2019년 생활SOC복합화 사

업에 선정돼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6억7000여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142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를 최근에 준공했다.

신축된 계림2동 복합센터는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했다. 3층은 다목적실, 예비군 동대본부, 4층은 마을사랑채, 주민자치회 사무실, 문서고를 배치했다.

/김도기 기자

수자원공사, 정원박람회 입장권 1억 구매

생태·환경 가치 공유...통근 입장권 구매로 박람회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난 26일 순천 시정사에서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하며 1억 원의 입장권을 사전 구매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재)순천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천체영 사무총장,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백인노 부부장, 김창준 주임팀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주안담을 중심으로 최근 심화되

고 있는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페플라스틱 재활용, 아동 놀이교실, 취약계층 돌봄 지원 등 활발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백인노 부부장은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 환경의 가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교육행정협의회 '미래교육 대전환' 준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협의 사항 공유·협력방안 모색

광양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동의장인 이계준 교육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등 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9일 실무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바탕으로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학교 및 교육시설 건립 ▲초등 돌봄교실 증식지원 등 운영개선 ▲진월초·광양진월초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황금지구 초·중 통합운영학교 인시 배치에 따른 협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광양교육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위해서는 미래인재 양성이 중요하며, 광양교육 발전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계준 교육장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광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래 광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협의회가 종료된 후 양 기관은 (가칭)진월초·광양진월초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 신축(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로 전환을 위한 협력에 한 발짝 더 나

서게 됐다. /광양=조순익 기자